

토론문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학교)

전후일본의 대 한반도 외교의 전개 : 지정학, 탈식민지화, 냉전체제, 경제협력.

일시 : 2012.09.05. 12 : 0 0 - 1 4 : 0 0 .

장소 : 국제대학원 GL룸 .

사회자 : 우선 선생님께 충분한 강연시간을 못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어로 강연이 쉽지 않았을 텐데 기미야 선생님께서 한국어를 매우 잘하셔서 좋은 강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미야 선생님께서는 한일관계 전문가로서 탈분단, 탈식민의 과제를 중심에 놓고서 한일관계를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 자리에는 일본전문가 두 분의 토론자 선생님께서도 나와 계십니다. 두 분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국민대의 이원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원덕 : 고맙습니다. 국민대학교의 이원덕입니다. 기미야 선생님 말씀에 우선 동감을 표합니다. 이전부터 기미야 선생님과 학문적, 인간적으로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기미야 선생님의 논점을 부각시키는 코멘트 겸 질문을 드리게 된 입장이기 때문에, 한 5가지 큰 문제제기를 할까 합니다. 선생님의 입장도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대체로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종속변수라고 하나요?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팩트를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 일본의 국내체제 그리고 한일관계를 둘러싼 글로벌한 질서 문제 또 한일양상의 관계 북한변수 중국변수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양국의 리더십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변수라고 보는데, 그래서 5가지 차원의 문제제기를 통해서 기미야 선생님의 논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문제와 연관해서 보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본내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둘러싼 나름의 논쟁구도가 형성되고 있지 않나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일본 내의 보수 우익의 입장은 중국의 급부상과 북한, 그리고 최근 한국의 행태 등을 살펴볼 때 일본입장에서는 대륙계와 손을 잡고 한국과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각은 대체로 미국이나 호주 동남아 해양세력하고 손을 잡고 대륙하고 대치하는 19세기적인 각도죠. 그런데 그런 각도로 한반도 세력을 보는 세력이 적지 않게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와타나베 도시오를 비롯해 소위 신타아론(新脫亞論)이죠. 대륙을 버리고 해양을 통해서 일본의 미래전략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움직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는 주류라고 보는데요, 한일관계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국과 일본을 중추로 놓고 일본의 대륙정책을 구사해야 된다. 이런 세력들이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이 두 세력 간의 전략을 둘러싼 내부갈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 기미야 선생님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일본의 한반도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이 논쟁구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문제, 중국문제에 대해서 기미야 선생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한일 간의 갈등요소 중의 하나가 중국인식입니다.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중국하고 관계설정

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일양국이 부딪칩니다. 우리는 중국이 싫든 좋은 미국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초강대국으로 동아시아가 재편되고 있다고 하는 기본인식에 서서 대외전략을 짜고 있는데, 일본은 반드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버블상황에 있고 부패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희망적으로 간다기보다는 과도기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북한과의 통일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중국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 통상 무역의 현실로 보더라도 중국이 대단히 중요한데, 일본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중국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말하자면 한일 간의 시각차가 지금의 한일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중국을 둘러싼 한일 간의 긴장이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의 국내정치와 관련해서입니다. 한반도 정책에 관련된 주요 팩트 중의 하나가 일본 국내정치이기 때문에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최근 일본의 국내정치 상황을 보면 65년 체제, 한일관계에 있어서 65년 체제가 안전핀이었다고 보는데, 이 안전핀이 뽑힌 게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을 예측하고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 안전핀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의 역사문제, 영토문제 등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물론 한국이 먼저 야기 시킨 측면이 있지만 과거에는 일본의 내성이 이렇게 약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그 문제를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일본의 정치경제 엘리트들이 또는 일본시스템이 이를 소화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는데, 최근의 일본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일본의 상대적인 위기의식이 있을 거고, 3.11이후의 사회심리적인 동요 또는 20년 동안의 경제정체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안감, 리더십의 부재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는 하나,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일본이 어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총선전야, 민주당 대표선거 자민당 대표선거 대략 그런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일본의 한반도 정책의 토대가 너무 취약해진 것이 아닌가, 어려운 지경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놀라운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미야 선생님은 한일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국내정치 체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일본의 최근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런 걸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북한문제인데요, 북한문제에 대해서 사실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면, 한국 내에서는 북한에 대해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통일하는 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체제는 과도기며 북한과의 대화협력에는 한계가 있고 임계가 있다는 그룹이 있고, 북한과의 대화협력을 통해서 분단체제를 관리하고 통일로 가야한다는 그룹이 있습니다. 대략 이런 세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기미야 선생님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셨지만, 북한체제 자체를 사실상 포기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 가는데 현실적이다 이게 메인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북일국교정상화라든지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 뭐 이런 거를 하기 보다는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압박을 가해서 한국이 지도하는 한반도와 미래 한일관계를 맺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꽤 강해졌다고 보는데, 일본 내에서의 북한정책을 둘러싼 논쟁의 구도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최근의 한일관계의 진단인데, 제가 기자들한테 많이 받은 질문입니다만, 지금 한일관계의 위기상황을 전후 한일관계의 역사 속 관계 보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예컨

대 김대중 납치사건과 같은 한일관계의 위기로 보는 거냐, 아니면 2001년 교과서 사건으로 보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 지금 한일관계의 위기 상황의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출구를 찾아야 하는 건지, 소위 출구전략은 어느 쪽에서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이원덕 선생님의 질문 잘 들었습니다. 그럼 남기정 선생님 토론까지 마저 듣고 기미야 선생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 : 일본연구소의 남기정입니다. 이원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질문에 모두 포함되기도 하겠지만, 일단 마지막 질문을 이어 받아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 이야기의 틀은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한일관계의 진단에 관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 약간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원덕 선생님의 4번째 질문과 관련이 있기도 한데요, 같은 방식이긴 하지만 문제제기가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일관계의 진단을 기미야 선생님이 제기하신 3가지 수준으로 각각 설명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남북분단체제에 대한 일본의 정책이 베이스에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이야기로 하자면 '휴전협정체제의 관한 일본의 국가전략'인데, 더 제 얘기로 하자면 '기치국가의 미래'라고 하는 것인데, 정전협정 하에서 일본의 외무성에서 만들어냈던 한 보고서에서 냉전시기 일본외교의 대전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지도가 뭐냐 하면은 '전쟁도 통일도 없는 한반도'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두고 그것에 따르는 외교를 한다는 것이 있었고 미일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쟁도 통일도 없는 한반도를 보증 하고, 다시 전쟁도 통일도 없는 한반도라고 하는 것이 미일동맹을 유지, 강화하는 이런 구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0년대 전쟁 또는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유사'라는 말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보통국가론이 등장을 하면서 이른바 안보역할을 강화해야겠다는 것이 2000년대 중국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중국인이 쓴 책 중의 문제의식입니다만, 북한과의 관계는 중국만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관계다. 즉 일본과 중국의 핵 구상에 있어서 이것이 동아시아의 문제라는 인식입니다. 여기서 중시해야 할 것은 중국의 대두에 있어서 한일관계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필연성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일관계를 동아시아국제질서의 현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상수가 되어버린 것이죠. 어느 순간, 순간적으로 말이죠. 이제 등장하는 한류가 있어가지고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것이 인류에서 얘기됐던 것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자라고 했던 것이 작금의 한일관계가 있었던 바로 직전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관계를 다루게 되었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거꾸로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한 상황 하에서 결국에는 일본외교의 전체 속에서 대한반도 외교가 실종을 하게 됐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되돌아가면 결국에는 동아시아 체제가 휴전협정체제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 이를 극복하는 것을 한일양국의 문제로 삼자라는 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북일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결국 한일관계의 개선이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공동의 목표로 세우는 것이 일본으로서도 필요하고 거기에 구조를 맞춰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최근의 북일관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원덕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대 한반도 정책의 이데올로기적 분기에 대해 일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기미야 선생님은 마치 일본이 한 덩어리인 것처럼 정부의 입장을 하나로 설명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원덕 선생과 같은 질문도 가능하지마는 한편으로는 전후의 한일관계를 이끌어왔던 일본 내의 세력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던가를 다시 보고 그 대항세력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제 지도교수인 와다하루키 선생의 글을 보게 되면, 이걸 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만, 일본 내의 보수권력의 경제주의하고 시이나 에쓰사부로 대표되는 보수담론의 아시아주의로 인해 한일회담이 타결되었고 이것이 한일관계의 원형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수권력의 원형이라고 하는 요시다가 직접 쓴 서언에서 그는 아시아의 맹주로서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 원료확보를 위한 아시아를 중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요시다의 생각이 거의 아시아 맹주론에 가까운 것이고, 그런면에서 보수권력이나 보수관료나 아시아에 대해 갖는 생각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거꾸로 과연 보수권력의 경제주의라는 것이 한일관계 각각의 항목을 유지하는 기본 동력이었는지 그 자체도 의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들어 보수권력의 경제주의라고 하는 것이 파탄이 된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아시아주의 또는 아시아 맹주론이 횡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와다선생님은 그런 입장에 대해서 그 위에 존재했던 많은 세력들, 공산당, 사회당, 신보수라고 할 수 있는 미야자와, 오사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건전한 아시아주의, 또는 건전한 한반도정책이라고 하는 단초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갑갑한 마음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일종의 아이디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상으로서의 건전한 아시아주의 또는 건전한 한반도주의 구상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예 두 분 선생님께서 굉장히 방대하면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문외한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질문을 정리하자면, 먼저 탈아론과 아시아주의, 건전한 대안으로서의 아시아주의 이런 것이 있는 거 같고, 거기에 있는 중국인식, 또 하나가 북한인식, 이런 세 구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정치세력의 차이가 나오기도 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답변해 주실지 기대됩니다.

기미야 : 남기정 선생님의 질문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이원덕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노다 총리가 이번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일본을 해양국가로 간주했다는 것은, 물론 이걸 바닷가에 있는 영토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그런데 첫째 허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는, 그러니깐 과연 미국이 그렇게 되면, 그런 구도가 되면 일본 편을 들어줄 수 있는건지, 그런데 사실 뭐 미국도 어렵거든요, 미국을 유지할 수 없다면 일본의 전략을 유지할 수 없는 글썄, 물론 미국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노다 총리가 말한 거는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중국에 관한 것이지만, 중국에 대해서 저는, 물론 중국에 대해서 역사, 영토문제에 있어서 공유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북한에 대한 입장차, 입장이라기보다는 대응차

라고 할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한국하고 일본은 북한문제에 관해서 주변화 되어있다. 6자회담 속에서도 그렇고 크게 봐서도 북한자체가 북미협상을 중시하고 또 남북협력든가 북일협력보다 중국에 대한 협력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역시 그게 좀 중국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자세차라고 할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역시 적어도 북한의 역사에서 보면 역시 자주라는 자세를 강조하고 있고 북일협상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북일협상에 대해서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고, 중국에 위정하는 것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거를 이용해가지고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주변화라는 것을 극복하려는 것을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노력해야겠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좀 더 개선되면 중국에 대한 한국하고 일본의 차이가 줄어들지 않는가,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대북정책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치 불안정은 물론 저는 일본은 대국정책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대국이 안 되어서 대국을 선택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뭐 한국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하고의 관련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아직 일본이 대국이면서도, 그다지 뭐랄까 예전 같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일본 쪽에서도 예전과 달리 한국이 어떻게 보면 대등한 관계가 됐는데 왜 일본에서 보면 그 정도의 지위가 됐으면, 한국도 좀 책임 있는 행동을 해라 그렇게 보는 게 있지 않나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정치 불안정은 저는 선거가 가까웠기 때문에 2단체제를 선호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소속제에 따른 2단체제가 일본의 정치풍토에 맞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북한 문제인데, 글썄 어떻게 보면 북한을 직접 통하기보다 한국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한일관계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현실성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면 여러분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역시 일본은 한일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역시 북한과의 관계 하에서 좀 뭐랄까, 아주 독하게 말씀드리면 양다리 외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제 말은 한국이 북한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 중 하나는 역시 북한과의 관계로 인한 겁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의 타이밍에서 북일 협상을 시작했다는 것도 물론 우연의 일치겠지만, 저는 역시 일본은 한일관계를 생각해서라도 북일관계에 있어서 독자적인, 한일관계에 있으면서도 독자적으로 북일관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일관계의 위기에 대해서인데, 글썄 제가 저번에 말하셨던 거와 다른 거는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많은 관광객들도 오고 또 수학여행지로도 많이 오고 거꾸로 한국에서도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가고, 뭐랄까요 빈번한 교류, 다층적인 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관계로 보고 있는데, 그런 관계는 예전과 비교하면 달라진 부분이고, 그게 하나의 안전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아주 취약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기정 선생님의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너무 어려워서 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북일관계가 왜 이러한 한일관계 속에서 생기는가,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한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일협상을 시작했다, 또 한국 쪽에서 보면 일본은 다시 양다리 외교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불신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북일협상에 있어서 한국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바라는 대로 한국에 힘을 주기 위해서 역시 북일협상을 하고 이것이 한국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자 : 질문은 어려웠는데, 답변은 간략하고 명쾌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답변에 대해서 토론자 분들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이원덕, 남기정 : 없습니다.

사회자 : 선생님께서 다층적 관계가 오히려 안전하다고 하셨는데, 여기계신 모든 분들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인데요, 청중에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문휘창 : 네 반갑습니다. 국제대학원의 문휘창 교수입니다. 여기 와서 보니깐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저도 자주 오겠습니다. 제 전공분야는 경영학입니다. 제가 듣고 있다 보니 제가 하는 접근과 외교적 접근은 다른 것 같네요. 세미나는 하고 싶은 얘기를 맘껏 하는 곳이니깐요,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웃음) 예를 들면 제가 문외한으로서 질문을 하면 일본이 지금, 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민족주의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반일, 반미감정 전혀 없습니다. 학문적 접근의 차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건지, 이걸 분쟁지역으로 해서 일본사람들이 이게 과연 일본화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얼마 전에 박철희 교수가 <조선일보>에 얘기했는데, 이야기 내셔널리즘, 즉 실현가능성은 없지만 마음을 달래는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말이지요. 즉 분쟁지역화하는 것이 일본인들에게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자 :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의 질문을 받고 기미야 선생님이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다른 분 있으신가요?

유주열 : 안녕하세요, 저는 한일협력 사무총장 유주열입니다. 저는 일본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한반도 안보가 일본 안보와 직결된다고 할 때,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은 한반도를 자기 나라의 교두보로 여겨왔습니다. 지금도 대륙진출에 대한 생각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문제가 중요시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진필수 : 저는 일본연구소의 HK연구교수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간교류가 한일관계를 안전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영토문제라는 것이 있기 전에 한일 교류가 많이 있었고 진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토분쟁이 일어나면 수학여행, 한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간교류라는 것은 한일관계의 안전판이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박태균 : 국제대학원의 박태균 교수입니다. 조금 전 문휘창 교수의 말을 이어서 하자면, 독도에 대한 입장이 서로 강력하게 대비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일본사회의 변화, 한국의 위상 변화, 변화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냉전체제의 한일관계를 말씀해주셨는데 일본외교의 자율성, 특히 미일관계 속에서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냉전체제에 있어서 일본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지금의 있어서 일본의 외교성이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북일 관계에 있어서

도, 북미관계 하에서 북일 관계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자 : 작금의 민감한 문제를 포함하면서 또 다시 몇 가지 질문의 폭이 있는데요,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기미야 :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우선 일본사람들은 그렇게, 북한영토는 잘 모르겠지만, 독도가 일본으로 영입된다는 것에 대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거는, 일본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단 그걸 떠나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바로 일본어로 센카쿠 영토문제와 겹쳐서 터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역시 일본에서는 독도 문제를 양보하게 되면 센카쿠까지, 한국에 비하면 비중이 훨씬 더 크죠. 한국의 입장에서는 약간 조심스럽습니다만, 강한 중국에서 생각할 때, 센카쿠 열도를 양보 안 할 수 있는 건지, 이번 사태는 센카쿠 문제가 겹쳐서 생각해보는 때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예전의 독도 또는 다케시마 문제만 터졌을 때와는 확실히 다른 양상들이 얹혀 있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주열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도 뭐 그런 지적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시바료타료의 <언덕위의 구름>에서 다루는 거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약한나라인 일본이 강한 청국과 러시아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구도로 보면 청일전쟁도 러일전쟁도 결국은 한반도를 두고 어느 쪽이 한반도를 차지하느냐 그런 전쟁이었지만, 일본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없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구도 속에서는 약한 일본이 강대국을 맞서 자기 나라를 지켰다, 그런 좋아하는 역사의 스토리가 있지 않았나 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교두보로 삼았던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대로 가면 일본은 위험하다, 이걸 지도자의 말인데, 한국이 잘 했더라면 괜찮은데, 한국이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가지고 한반도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안보라는 거는 딜레마라는 말이 있는거와 같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거를 빼앗고 지키야 하는, 그런 것이 반복되는 거죠, 일본의 지정학적인 안보라는 것은 그런 이질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물론 좀 여러 가지 민간교류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모든 관계를 민간에만 맡겨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일관계에는 정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중일관계를 비교할 때, 중일관계는 아무리 중산층이 일본에 온다고 해도 두터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번 중국의 시위도 그렇고 일본의 우익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중일관계를 보면 상황이 악화되면 일본에서 중국에 대해 호감을 갖는 사람도 줄어들고 비례적인 관계가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 김영삼때도 노무현때도 그렇고 한일관계가 악화됐을 때도 일본사람들의 한국인식이, 물론 영향은 받겠지만, 그래도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죠. 그런 의미에서 방파적인 영향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거는 중국과의 차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박태균 선생님은 외교사 하시는 분답게 말씀하셨는데, 글썄 그 저는 기본적으로는 냉전기도 그렇고 이상하게 일본외교사를 생각할 때, 일본은 그런 틈을 타고 뭔가 자유로운 말을 해 내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그런 냉전체제가 공고한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자율성이 있었다고 할까요, 그런 냉전이후의 일본의 그 뭐랄까 외교정책을 생각하면 오히려 한편으로는 냉전시기는 미국의 냉전전략에 따라가면 되는데, 냉전정치이후에는 자율적으로 구상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사실 실제로 하고 있는건 이걸 중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미국의 냉전인식보다 더 강한 그러한 인식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역설적인 것도 있지만요. 그리고 역시 북일관계에 있어서도 고이즈미 시기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김대중 시기에도 협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왜 안 되었냐고 하면, 미국의 특히 부시정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고 역시 미국의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 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런 측면에서 북일관계하고 자유롭지 못한 것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은 북일관계도 진전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일관계도 그것에 따라서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자 : 시간을 초과해서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일관계를 논한다는 것이 미국, 중국, 북한 모든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새로운 전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럼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청중분과 토론자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기미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